

2025. 6. 11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6월 1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대공원 동물원 종보전연구실

동물원장

권수완

02-500-7002

종보전연구실장

여용구

02-500-7702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<http://grandpark.seoul.go.kr/>

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과 함께 천연기념물 산양 교류 통한 종보전 지속

- 2년간 동물원에서 번식한 산양 5마리 중 3마리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 이동
- 유전자 다양성 확보 위해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에서 수컷 1마리 서울대공원 반입
- 유관기관 협력해 저어새, 금개구리, 낭비둘기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보전사업 지속 수행

서울대공원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, 6월10일 서울대공원은 '23년과 '24년 번식된 산양 5마리 중 3마리를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으로 반출하고 수컷 1마리를 반입했다고 밝혔다.

○ 서울대공원은 유전자 다양성 강화와 국내 산양 보전사업을 위해 개체 확보에 기여하는 등 종보전 역할에 주력해 왔다.

'22년 11월 말 서울대공원은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과 '멸종위기 야생동물 공동 연구·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'을 체결하고 그 해 12월 초 산양 수컷 1마리를 서울대공원으로 반입한 바 있다.

○ 당시 서울대공원에는 산양 암컷 3마리만 보유하고 있어 종보전을 위해 수컷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.

- 산양 번식에 적절한 사육환경을 조성해 준 결과 '23년 2마리를, '24년에는 3마리를 번식하는 등 총 5마리의 산양 번식에 성공하였다. 그 결과 현재 서울동물원은 9마리의 산양을 보유하고 있다.
 - 수컷 1마리, 암컷 3마리, '23~24년간 번식한 어린 산양 5마리 등
- 산양(Long-tailed goral, *Naemorhedus caudatus*)은 환경부 지정 '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'이자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종이며, 국제적으로도 IUCN 적색목록에서 '취약(VU, Vulnerable)' 등급, 'CITES 부속서 Ⅰ'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도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 종이다. 국내에서는 주로 월악산 등 강원 동북부와 백두대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으며,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이 협력하여 산양 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.
- 이번에 반입된 수컷은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에서 번식된 개체로서 이 개체를 통해 현재 동물원 내 산양의 유전적 병목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또한 반출된 산양 암컷 새끼 3마리는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로 이관되어 야생방사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야생방사 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. 동물원은 산양 번식과 사육기술 개발, 혈통관리를 통한 서식지외보전 역할을,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은 방사 훈련과 야생 방사, 방사 후 모니터링을 통한 서식지내 보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.
- 박진순 서울대공원 원장은 “산양 등 토종 멸종위기종 보전은 서울동물원이 나아갈 방향이며 핵심 전략이다”라며 “앞으로 산양 보전사업 뿐만 아니라 저어새, 금개구리, 낭비둘기 등 여러 종에 대한 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
반입개체 사진1



반입개체 사진 2



반출개체 사진 1



반출개체 사진 2_반출 직전